

임진왜란 직후 寶城 朴根孝의 서적 간행 활동*

Publication of Books by Boseong Park Geun-hyo's After th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이 상 현 (Lee, sang-hyu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2 서적의 간행의도 |
| 2. 박근효의 학문성향과 의병활동 | 3.3 간행서적의 배포 |
| 3. 『만포집』에 나타난 서적 간행 활동 | 4. 맺음말 |
| 3.1 간행 참여 인물과 물자 지원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17세기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을 겪고 난 이후 민간이 서적 간행의 주체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 사례로서 보성지방의 사족이자 임진왜란시 의병장 가운데 한 사람인 晩圃 朴根孝(1550-1607)의 서적 간행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근효는 王子師傅를 지낸 竹川 朴光前(1526-1597)의 아들이자 임진왜란 때 전라좌 의병장 임계영 휘하의 참모장으로 군량 마련과 조달에 책임을 맡아 임무를 수행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서적을 간행했던 기록은 문집 『晩圃集』에 3건의 통문과 6건의 편지가 수록되어 당시 간행 경위를 잘 살펴볼 수 있다. 박근효는 戰火로 인해 서적이 불타 없어져 선비들이 책이 없어 글을 읽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동지들과 책을 간행하고 반포하여 강상을 붙들게 하고 세도를 돌이키고자 하였다. 1599년(선조 32) 竹川書堂에서 인쇄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물자가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좌의정 李德馨(1561-1613), 전라도 순찰사 韓孝純(1543-1621), 병마절도사 李光岳(1557-1608), 통제사 李時言(?-1624) 그리고 명나라 도독 陳璘(1543-1607)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중 이덕형에게 나주에서 집중된 각공을 보내달라는 요청과 통제사 이시언이 목판 200여 판과 양곡을 지원해준 사실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도움은 그가 작성한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의 발문에도 나타난다. 이외에도 서적 간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인근 고을에 통문을 보내어 서적 간행을 도왔던 동지들에게 간행 사실을 알렸고, 이후에는 부족한 물자를 도와주길 요청하기도 하였다. 1600년(선조 33) 죽천서당에서 간행된 서적은 교육서 위주였고 『소학집설』·『고금역대표 제십구사략통고』·『삼략직해』·『천자문』이 간행되었으며 『천자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전본이 존재한다. 이 간행 서적들을 육로와 선박을 이용하여 배포하거나 판매하였으며, 藏書記를 통해 전라도 장수군까지 판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효의 서적 간행은 전쟁 직후 가장 이른 시기로 민간에서 주도한 출판사업이자 동시에 지방관의 도움을 받아 서적을 복구하려는 간행 활동이었다.

要語: 朴根孝, 晩圃集, 竹川書堂, 17세기 초, 민간출판, 교육서 간행, 서적 배포, 坊刻本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일부의 보완 정리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kangyou84@hanmail.net)

투고일: 2020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24일

서지학연구, 제84집, 257-278,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4.257>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book publishing activities of Park Geun-hyo (1550-1607), as an example of a trend in which the private sector emerged as a main publisher of books in the 17th centur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ended. Park Geun-hyo was a sajok, or local gentleman of the Boseong region, and one of the righteous army chief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Park Geun-hyo, one of the sons of Park Kwang-jeon (1526-1597), who served as the prince's master, was a chief of staff under the command of Im Gye-young, leader of the left Jeolla guerrilla forc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Park Geun-hyo was also responsible for preparing and procuring military supplies. The records of his publications are found in the three articles and six letters contained in the collection *Manpojib*. The circumstances around his publication activities at that time are described in these articles. Park Geun-hyo regretted that scholars were not able to read books, because most of them had been burn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For this reason, he worked with other like-minded people to publish and distribute books, trying to maintain Samgang and Osang, the three rules and five virtues in Confucianism, and set the world right again. Park Geun-hyo began preparing for printing at Jukcheon Seodang in 1599 (the 32nd year of King Seonjo). But due to a shortage of supplies, Park Geun-hyo sent letters requesting help to left-wing councilor Lee Deok-hyung (1561-1613), Chief Commander of Jeolla Han Hyo-soon (1543-1621),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 Lee Kwang-ak (1557-1608), Supreme Commander Lee Si-eon (?-1624), and Jin Rin (1543-1607), Commissioner-in-Chief of the Ming Dynasty. Among them, it is notable that Park Geun-hyo asked Lee Deok-hyung to deploy engravers, concentrated in Naju, and that Lee Si-eon provided him with 200 woodblocks and grains. Their support was also referenced in the epilogue of his book, *The 19 Historic Enigmas of Ancient and Modern Times*. In addition, during the publication process, Park Geun-hyo sent an official notice to comrades who helped him about the publication, and later asked them to donate supplies. In 1600 (33rd year of King Seonjo), the books published at Jukcheon Seodang were mainly educational books. These include *Sohak Jibseol*, *The 19 Historic Enigmas of Ancient and Modern Times*, *A Korean Annotation of a Military Strategy Book*, and *The Thousand-Character Classic*. Original copies of all books are still preserved, with the exception of *The Thousand-Character Classic*. These books were distributed or sold via land and sea routes, and it was confirmed through records that they were sold in Jangsu-gun, Jeolla. Park Geun-hyo's publication of books was among the earliest private publishing projects after the Japanese wars, and was also an effort to restore books with the help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Key words: Park Geun-hyo, *Manpojib*, Jukcheon Seodang, early 17th century, private publication, publication of educational books, distribution and selling of books, Bang-Kak-Bon(坊刻本)

1. 머리말

임진왜란은 조선사회의 큰 타격을 준 동시에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다. 조선의 출판시스템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며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16세기까지 조선은 서적 간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관청 위주의 관 중심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7세기 전란을 겪고 난 이후 민간이 서적 간행의 주체로 서서히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¹⁾ 7년간의 전쟁이 끝나자 중앙과 지방관청에서는 전란에 피해당한 서적의 복구작업에 노력하였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적은 부족하였고, 일부 사대부들은 책계를 조직하여 서적을 간행하기도 하였다.²⁾ 이처럼 민간에서 서적을 간행하려는 모습이 17세기 초반 여러 지방에서 나타나는 데 보성지역도 그 중 하나이다.

보성의 朴根孝(1550-1607)는 정유재란이 끝난 후 전란으로 사라진 서적을 복구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竹川 朴光前(1526-1597)의 아들이자 임진왜란 때 전라좌의병 임계영 휘하의 참모장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선대에 이어져 온 문적이나 서적들이 불타 없어진 것을 한탄하고, 또 후학들이 배우고자 하나 배울 책 한 권이 없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이에 뜻을 함께한 친구들과 함께 전란으로 없어진 책을 복구하고 후학을 인도하기 위해 서적 간행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문집인 『晩圃集』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박근효의 문집 『만포집』은 본래 遺集으로 그가 남긴 유문을 난리 속에 잃어버리고 전해진 것은 별로 없고 오직 이 한권뿐이었고 그의 둘째 아들 朴春長이 흩어져 없어진 가운데 남은 것을 수집하였다. 박춘장은 아버지의 문적을 찾으려 찾는 대로 기록해 두었고, 한 권의 책으로도 만들 수 없어 헤어지고 낡고 빈약하였다. 이후 등사하여 여러 가정에 전해 왔으나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 전해 온 것마저 없어져 버렸고 오직 竹晩公이 손수 쓴 한 권만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만포집』에는 박근효가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작성했던 편지와 통문들이 남아 있어 그가 서적 간행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박근효의 서적 간행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만포집』을 통해 서적 간행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박근효의 생애와 의병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가 서적 간행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박근효의 학문성향과 의병활동

박근효는 호남 5현 중 한 사람인 죽천 박광전의 첫째 아들이자 자는 立之이며 호는 晩圃이다. 그는 『朱子家禮』를 법으로 삼았고 과거시험에 종사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1591년(선조 24) 봄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성균관에서 유학할 때 文望이 그에게 돌아왔다. 成渾(1535-1598)과

1) 옥영정, “17세기 출판문화의 변화와 서적 간행의 양상,” 『다산과 현대』 3(2010. 10), 69.

2) 박철상, “冊契로 본 17세기 南人들의 상업출판,” 『대동한문학』 52권(2017. 9).

李珥(1536-1584) 두 선생이 영재를 교육하는데, 그는 두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시비를 바르게 하고 말씨와 행동을 법도에 맞게 하였다. 두 선생은 그의 박식한 학문을 보고 斯文의 도가 있는 선비라 칭찬하였다. 그는 항상 경전을 가지고 自娛 하면서 심신을 기르고 기질의 결점을 살피서 극기로 바로잡아 다스리고 다만 “예가 아니면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말라는 공부를 위주로 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고 “이 말을 자손들이 특별히 지켜야 할 자료로 삼는다면 밖을 제재하고 마음을 닦을 수 있어서 청명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마침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아버이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일을 한결같이 『소학』과 『가례』로써 법으로 삼았다.³⁾

아버지 박광전은 『소학』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자교육에 임했으며, 퇴계 이황에게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고 돌아갈 때 필사본 『朱子書節要』를 받아 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王子師傅에 임명되어 왕자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그의 학문 수준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⁴⁾ 박근효는 학문을 익히는 데 있어서 아버지 박광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성리학이 지향한 爲己의 성향으로서 실천하는 학문에 중점을 두었다.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 일본군은 약 20만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으로 조선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주장으로 한 1번대 병선 7백여 척과 1만 8천여 병력이 부산포에 상륙하여 부산진과 동래성을 공격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되었다. 호남지방은 전라도 수군의 勇戰과 영남우의병 및 호남의병의 항전으로 인해 일본군의 공격이 실패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무인지경을 그대로 행군하여 한성까지 진격하게 되었다.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남의 각처에서는 일본군을 막기 위해 의병을 일으키게 되었다. 박근효의 아버지 박광전도 마찬가지로 보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당시 박근효는 아버지를 따라 함께 의병에 가담하였다. 박광전을 따라 창의한 의병 중 정병 7백여 명을 얻어 부친의 명을 받고 병사를 거느렸다. 그는 동생 根悌와 함께 행재소에 상소를 올리고 각 읍에 격문을 전하였으며, 이때 돌린 격문이 『만포집』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 진사 박근효는 각 읍의 모든 군자들에게 알립니다. 통탄스러운 일은 凶醜의 걱정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는가마는 어찌 오늘과 같은 때가 있겠습니까? 열흘 이십일이 못되어 갑자기 왕도가 함락을 당해 대가는 피난을 떠나고 사적이 피비린내가 나는 현실이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혈기가 있는 자라면 누가 간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믿고 나라를 지킬 곳은 오로지 하삼도에 있을 뿐인데 이미 두 곳을 잃고 지금 또 우리 지역으로 침범해 오고 있으니 장래의 화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중략)… 지금 전라도 일도의 군사들은 용맹스럽고, 말은 강하며, 쌓아둔 곡식이 부유하기로 일국에서 최고입니다. 만약 굳게 지켜서 일국의 울타리가 되어 군량과 병력을 운반하고 조달해서 굳게 막고 지키기를 어찌 소하가 관중을 지키고 장군이 수양을 지키듯이 할 뿐이겠습니까? …(중략)… 격문이 도착하는 날 즉시 서로 아는 사람들과 온 고을에 알려 소식이 전달되지 않는 자, 도피자, 죄를 짓고 갈 곳 없는 자, 공을 세워 發身을 원하는 자, 지략과 용력이 있는 자는 실제로 방문하여

3)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197-198.

4) 윤사순, “16세기 조선 유교사회와 竹川(朴光前)의 선비정신,” 『퇴계학과 유교문화』 32호(2003), 13-19.

5)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경기: 아세아문화사, 2011), 61-62.

날날이 기록해 올리면 관청 책임자는 명단이 기록된 장부를 지참하고 이달 12일전에 보성 관문으로 모여 상의하여 약속한 다음 일제히 출발할 것입니다. …(중략)…⁶⁾

위의 격문으로 의병에 참가하기 위해 사람들이 보성 관문에 모였고 1592년 7월 20일 任啓英(1528-1597)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때 그의 외삼촌 文緯世(1534-1600)는 糧餉官, 鄭思悌(1556-1592)는 종사관이 되었다. 장흥에서 올라온 의병들과 함께 낙안을 거쳐 8월 6일 순천에 당도하였고 이때 모인 병력이 7백여 명이었다. 순천에서 前萬戶 張潤(1552-1593)을 부장으로 삼아 8월 10일을 전후로 하여 남원에 도착하였다.⁷⁾ 이때 당시 그는 참모관의 직책으로 의병에 참가하였다.⁸⁾

박근효는 좌의병장 임계영과 함께 남원을 떠나 장수로 나아가 주둔하였고 마침 우의병장 최경회가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합세하였다. 그는 최경회 휘하에서 義穀을 모아 수로와 육로로 군량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1593년(선조 26) 2월에는 영남과 성주로 곧장 쳐들어오는 일본군과 수 개월간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다. 일본군이 버틸 수 없어 개령으로 달아나자 최경회와 함께 좌우의병장을 세워 개령의 적을 합심하여 공격하자 또 후퇴하였으며 포로로 붙잡힌 4백여 명을 되찾고 경북의 모든 군을 회복시켰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지난번 쳐들어왔다가 패배하여 돌아갔던 진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최경회와 함께 진주로 향하였다. 그는 성 밖에서 지원하며 군량을 마련하는 일로 출타하여 성이 함락되었을 때 돌아오지 못하였다가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의병장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겼다. 다시금 격문을 여러 읍의 사군자들에게 돌려 의병과 의곡을 모았으며 왜적을 섬멸할 계책을 세워 전승을 올리는 공을 세웠다. 10월 御駕가 도성으로 돌아오자 선조는 그의 공을 치하하여 특별히 軍資正으로 제수하였으나 상소를 올려 사양하였다.

박근효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병활동을 하는 동안 전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주로 군량을 모아 조달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 그가 군량을 조달하고 군량을 관리하는 모습은 『만포집』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좌의병장 임계영을 대신하여 두 건의 상소를 올렸는데 모두 군량에 관한 걱정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좌의병 참모관으로 모자란 군량을 모으기 위해 격문을 돌렸다. 다음은 박근효가 의병에 참전하고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인 뒤 군량이 모자라 전라도 고을에 보낸 격문이다.

좌의병 참모관 전 진사 박근효는 一路의 모든 분들에게 고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군문에 머물면서 군량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물 한 방울이나 먼지 만한 양이라도 도와주기를 삼가 절하며 각 읍의 제현들께 알립니다.’라고 傳令이 내려왔습니다. …(중략)… 다만 근심스러운 일은 軍國의 수요는 단지 호남 일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관군을 고르게 출동시키고 의병을 규합해 징병할 책임은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모두 곤궁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며 우리 군사들이 때 늦은 밥을 지어 먹는 근심을 면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중략)… 성주와 개령에서 적과 교전하다 비축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중략)…

6)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壬辰舉義時檄文』, 145-147.;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93-96.

7) 조원래, 『장윤의 의병활동과 정충사』 (순천: 승병지방사연구회, 2013), 35-36.

8)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경기: 아세아문화사, 2011), 181.

5일분의 양식은 사십 석이 못 되고 그전에 준비했던 곡식도 남은 것이 없어 하루 아침에 굶주린 기색을 하고 있으니 시급합니다. 군사들이 흩어진 후에 한탄하며 필요 없는 글을 쓴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중략)… 사람들마다 한 되 한 말의 쌀을 국경을 지키는 병졸에게 제공한다면 길에서 군량을 운송하는 군사들을 접하게 되고 새나 쥐가 축내는 손실을 면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마다 저녁이면 부른 배를 두드리고 적의 기세를 꺾을 수 있어서 이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일의 급한 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말이 반복되었으나 또한 제 말을 이해하시고 실정을 안타깝게 여겨 힘에 따라 재물을 내주신다면 극히 다행이겠습니다. …(중략)…⁹⁾

위의 격문은 그가 좌의병장 임계영 휘하에 있으면서 경상도 안음과 성주, 개령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양식이 떨어지자 군량을 다시 모으기 위해 호남의 각지의 고을에 보낸 격문이다.¹⁰⁾ 그는 군량이 있어야만 먹고 싸울 수 있으며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를 회복하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위의 글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절이나 스님에게 보시하며 복을 구하듯 식량을 조금씩 모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처럼 격문에는 군량을 마련하면서 강제적인 내용보다는 사람들이 선의로서 도와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그는 위와 같이 군량 마련과 조달에 책임을 지고 치열해진 전투를 돕기 위해 격문을 보내고 좌의장 임계영을 대신하여 상소¹¹⁾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성을 나선 뒤 일본군이 쳐들어와 자신만 살아남은 일에 대해 한탄함을 보임과 동시에 군량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 있다.

왜란이 끝나고 난 뒤 박근효는 전쟁으로 인해 서적이 불타 없어지고 선비들이 책이 없어 글을 읽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두렵게 생각하고 몇몇 동지들과 함께 백록동에서 주자가 書肆를 열었던 뜻을 본받아 책을 간행하기로 하였다. 맨 처음 사서를 인쇄하여 후학을 개도하며 책을 널리 반포하여 강상을 불들게 하고 세도를 돌이키려 하였다. 1599년(선조 32)에 인쇄의 일을 시작하면서 인근 고을에 통문을 보내 서적 간행의 명분을 밝히고 자원이 모자란 상황을 언급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명나라 도독 陳璘(1543-1607)과 좌의정 李德馨(1561-1613) 등 중앙과 지방관에게도 편지를 보내 서적 간행을 위해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참여하고 공을 세웠던 일과 군량을 마련하여 조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성에서 창의할 당시 박광전일가와 처남 문위세 일가가 주축이 되어 보성과 장흥지역의 사림들을 모아 전라좌의병을 결성했고 지도층 인사도 두

9)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再檄」, 148-149;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96-100.

10) 이러한 상황은 양향관이었던 문위세의 『倡義日記』에도 잘 드러나 있다. 문위세는 박광전의 사위로서 군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군량 조달에 있어서 문위세와 박광전 그리고 정사제 등은 죽천의 집안사람들과 문인이었으므로 책임감이 컸음을 볼 수 있다(조원래, “朴光前의 舉義와 그 一家의 의병운동,” 『퇴계학과 유교문화』 32호(2003), 142).

11) 좌의병장 임계영을 대신하여 올린 상소를 말한 것으로 제2차 진주성 전투의 전후 상황과 의병들을 관군으로 편입시켜 더 이상 의병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점을 적고 있으며, 군량을 모은 사실과 현재 군량이 모자란 상황을 설명하였다.

가문이 중심이 되었다.¹²⁾ 때문에 박근효를 비롯한 그의 친인척들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 그가 서적을 간행할 때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가문과 사람들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3. 『만포집』에 나타난 서적 간행 활동

3.1 간행 참여 인물과 물자 지원

『만포집』에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1599년(선조 32)에 전쟁으로 불타 없어진 전적들을 복구하기 위해 서적을 간행했던 일에 대해 3건의 통문과 6건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 전라도 지역에서 서적을 복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박근효가 보성에서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고 이와 함께 나주에서도 전적을 복구하기 위해 인쇄소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불어 서적을 간행하게 된 이유와 간행에 참여했던 인물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만포집』에 “己亥刊書時通諭同志”라는 통문이 세 건 연달아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통문 내용을 보면 1599년 서적 간행을 시작하면서 同志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어떤 인물들이 참여했는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중략)... 저는 喪制로 있는 동안 선대의 公私 간의 문적이 모두 적의 난리에 타버린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어찌 저만 그렇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한탄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깨우치고 후학을 인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주자가 백록동에서 책을 인쇄하여 만포한 뜻을 본받고자 하나 혼자 지내기 때문에 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林汝愚와 함께 그 일을 언급하자 여우가 말하기를 “진실로 자네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다 같은 마음이니, 남들도 또한 나와 같은데 어찌 반응이 없는 것을 걱정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宣公溥[宣仁厚]와 安季彦에게 통지하자 안씨는 좋아하는 하지만 병으로 누워 있고 선군은 허락하며 힘을 펼 수 있는 길을 두루 생각하여 그 근원을 넓히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李營卿이 함께 왕래하며 左相·巡相·兵相·統相 네 상공께 제안하니 특별히 뜻을 두고 칭찬하며 권면하여 넉넉히 돕고 널리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망이 높은 사람과 선비로서 흠모를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자 각 읍에서 이 발의에 찬동하였습니다. ...(중략)... 대개 써서 보낸 서간들은 책에다 기록해 둔 것으로 우리 동지들의 뜻이 우연이 아님을 알립니다.¹³⁾

통문에 언급된 인물은 임여우, 선인후, 안계언, 이영경이 있다. 박근효는 처음 임여우에게 불타버린 전적을 복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가 찬성의 뜻을 내비치자 선인후와 안계언에게 알려

12) 조원래(2003), 40.

13)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己亥刊書時通諭同志」, 154. ;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101-102.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안계언의 경우 병상에 있어 돕지 못했지만, 선인후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이영경은 함께 왕래하면서 좌상 등 4명의 상공들에게 제안하여 도움을 얻어내기까지 하였다. 이들 가운데 파악되는 인물은 선공부 즉 선인후 뿐이다. 그는 字가 公漣이고 진사시에 입격한 인물로 당시의 사마 방목을 통해 알 수 있다.¹⁴⁾ 더불어 박근효의 아버지인 박광전의 문인이라는 것도 확인된다. 박광전의 문집인 『竹川先生文集』 「請建院疏」를 보면 「門人進士宣仁厚製」¹⁵⁾라고 기재되어 있어 선인후와 사제관계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박근효와 관계도 추론할 수 있다.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선인후를 생각해 보면 박광전의 문인이거나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에 함께 했던 인물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위의 통문에 나타난 인물들은 박근효가 서적 간행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단계부터 함께한 인물로서 서적 간행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간행을 주도했던 인물과 함께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간행본에 기재되어 있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들이 간행한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의 권말에 기재된 刊行諸員이다.

<표 1>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 간행제원의 관명 및 성명

업무	성명	직책	성명
有司	朴根孝, 趙琪, 田汝霏, 宣仁厚, 李命男, 安廷善, 孫汝興, 朴根悌, 宣廷幹, 金忠漢, 安邦說, 金俊民, 吳德洽, 韓文起, 朴春豪, 宋廷鳳, 黃元福, 宣敏中, 魏麟趾, 宋裕善	嘉善大夫全羅道兼巡察使	李弘老
		都事	申之悌
校正	宋文郁	資憲大夫兼三道統制使	李時言
都色	白長源	奉列大夫兼寶城郡守	金克悌

간행제원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全羅道巡察使 李弘老(1590-1608), 都事 申之悌(1562-1624), 統制使 李時言(?-1624), 寶城郡守 金克悌(?-?)¹⁶⁾가 서적 간행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有司, 校正, 都色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 기재된 사람들을 보면 앞서 통문에 언급된 박광전의 문인 선인후가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유사에 기재된 인물을 살펴보면 박근효의 동생 朴根悌와 아들 朴春豪, 박광전의 문인 安邦俊의 從弟 安邦說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을 통해 관련자들은 박근효와 친족관계 혹은 아버지 박광전의 문인으로 이뤄진 것이 파악된다. 나머지

14) 『萬曆四十年壬子三月十三日司馬榜目』 (고려대학교 도서관 청구번호: 만송 B8 A1 1612A)

15) 『竹川先生文集』 卷8, 「請建院疏」

16) 김극제의 경우는 『만포집』에 그가 油芭[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를 기한 내 진상하지 못해 파면 위기에 처하자 박근효는 상소를 올려 그가 보성에서 이룬 공적과 조정에서 받은 은전이 있음을 알린 동시에 파면이 합당치 않음을 호소하였다. 상소를 올린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조정에서 은전을 받았던 시기가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를 간행할 때 쯤이기에 서적을 간행한 이후에 일어난 일로 보인다. 박근효는 간행에 도움을 준 보성군수가 위기에 처하자 도움을 주고자 상소를 올렸다(박경래,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爲邑令金克悌伸冤疏」 116-117.;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65-68.; 『선조실록』 32년(1599) 9월 25일.)

인물들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보성과 장흥지방에서 박근효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박광전의 문인 혹은 함께 의병활동 했던 동료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간행제원에서 간행에 참여했던 인물들 이외에도 서적을 간행할 수 있도록 물자를 지원했던 인물들이 확인된다. 앞서 첫 번째 통문에 언급된 사람들 가운데 물자를 지원해 준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박근효가 서적을 간행하면서 물자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에서 함께 확인된다. 첫 번째 통문을 보면 “좌상·순상·병상·통상 네 상공께 제안하니 특별히 뜻을 두고 칭찬하며 권면하여 넉넉히 돕고 널리 구제해 주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 네 명의 인물은 당시 좌의정인 이덕형, 전라도 순찰사 韓孝純(1543-1621), 병마절도사 李光岳(1557-1608) 그리고 통제사 이시언을 가리킨다. 이 4명은 앞서 언급한 6건의 편지에 나타난 사람들이다. 이와 함께 편지에는 임진왜란 동안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파견된 명나라 도독 진린에게 서적 간행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포함되어 있다. 박근효는 이덕형과 한효순, 이광악 그리고 진린에게 각각 1통의 편지를 보냈으며 통제사 이시언에게는 2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들은 정확한 날짜가 없고 유일하게 있는 편지는 이덕형에게 보낸 편지인데 “윤달 4월 20일”로 되어 있어 그가 좌의정에 있던 1599년임을 알 수 있다. 또, 명나라 도독 진린에게도 서찰을 보낸 것을 보면 진린이 조선을 떠나기 전에 책을 간행하려는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효가 이들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대부분 양곡이 부족함을 토로하고 지원해주길 바라는 것과 부족한 각공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박근효의 요청을 받아들여 양곡을 보내주었고 때에 따라 책판에 사용할 수 있는 板木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공을 지원해 달라고 언급된 부분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각공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없는 것을 보면 지원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이덕형에게 양곡과 각공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략)... 나라에 일이 많으므로 각 군에서 鐫刻할 일꾼이 없습니다. 가만히 혼자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여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삼고 싶었으나 시국이 어렵고 힘이 약해 혹 뜻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중략)... 혼자 속을 태우다 순찰사께서 이미 그 뜻을 치하하며 허락하고 또, 제일 먼저 시작한 정성을 가상히 여긴다며 저에게 병마절도사와 통제사에게 권하여 책임지고 분명히 계속 돕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달 초에 벌써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략... 나주에 인쇄소를 설립한 후로 각 지역 각공은 모두 이곳에 소속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일은 도리어 개인적인 일을 생각하고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변통한 것은 사적이기는 하나 어찌 감히 그 서적을 개인이 소장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중지되고 폐지된다면 관심만 있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시작만 했지 끝맺음이 없을 것 같아 실로 우리 유림들은 걱정이 큼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각공을 어느 정도 나누어 보내 그 일을 분명히 책임지게 해주시고 겸하여 미곡도 보내주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신다면 지금 이후로 어찌 뜻을 이루고 일을 성취할 뿐이겠습니까? 따라서 문명의 덕화가 바닷가 지방에도 막히지 않아 훌륭한 덕과 아울러 우리 유학을 숭상하게 될 것입니다. 윤달 4월 20일.¹⁷⁾

17)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上李左議政德馨』, 120-122.;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70-72.

먼저 이덕형이 편지를 받았던 시기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좌의정에 있던 시기로 볼 수 있는데 그가 좌의정을 지낸 시기를 보면 1598년(선조 31) 10월 8일에 체수 받은 것을 알 수 있다.¹⁸⁾ 그리고 다음 해 1599년(선조 32) 8월 17일에 체차 되었다.¹⁹⁾ 그가 좌의정으로서 활동했던 시기와 비교해 본다면 박근효가 편지를 보낸 시기는 1599년임을 알 수 있다. 이덕형은 4월에 서울에서 도원수 권율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으며, 윤4월에는 나주에 머무르고 있었다.²⁰⁾ 이 편지는 이덕형이 나주에 머물던 윤4월에 작성된 것으로 아마도 박근효가 나주에 머무는 이덕형에게 보낸 것이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근효는 목판에 글씨를 판각할 각공이 없고 가용할 곡식이 부족하여 순찰사에게 부탁하였다는 것과 순찰사가 병마절도사와 통제사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돕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 서적 간행작업을 이달 초부터 시작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즉 박근효는 이덕형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 1599년 윤4월 초 이전부터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쇄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각공이 지극히 부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련한 곡식이 부족한 것이었다. 보성에서 서적 간행을 위한 작업이 시작될 때 나주에서도 서적을 복구하기 위해 인쇄소를 마련하고 각 지역의 각공들을 불러들여 인쇄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보성에서는 서적을 인쇄하기 위한 각공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는 편지로 말미암아 나주에 집중된 각공을 이곳 보성에 일부를 보내주어 인쇄 작업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호소하고, 동시에 부족한 곡식도 보내주어 보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덕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병마절도사 이광악과 통제사 이시언이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들이 서적 간행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도와주었는지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박근효가 이광악과 이시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중략)… 또 간절히 책을 인쇄하여 줄 것을 청하며 처음으로 말씀드렸는데도 성의가 가상하며 칭찬하고 허락하여 이미 양곡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구제하는 양식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드리자 곧 많은 혜택을 주셨으니 이런 일들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일이 밖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성취되는 계기는 손 한번 뒤집는 사이에 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의 큰 뜻을 함하게서는 내치지 않으시고 칭찬하며 허락하는 계기가 이와 같았고, 구제하여 붙들어준 공도 이와 같았습니다. …(중략)…²¹⁾

(2) …(중략)… 한스러운 것은 한번 焚蕩을 겪고 나자 경정이 모두 불타버렸으니 현인 군자들이 배움의 길로 들어서며 깨우치고 언행을 삼가야 할 한 권의 서적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저희 후생들이 애써 학업을 익히려 하나 한 줄의 글씨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관창은 일이 많아 힘이 미치지 않고 芸閣에서는 이미 철자를 전각할 장인이 없는데 각 읍에서 어찌 인쇄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에 저희가 분발하여 한두 권이라도 인쇄하여 분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8) 『선조실록』 31년(1598), 10월 8일.

19) 『선조실록』 32년(1599), 8월 17일.

20) 『난중잡록』, 권4, 기해년 4월·윤 4월기사.

21)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上李兵使光岳』, 131.;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80-82.

그러나 모두 다 곤궁한 나머지 사람들은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이 급하고 비록 한 사람이 재산을 내놓을지라도 인채공들의 한 달 경비도 충당할 수 없어 혼자 답답하게 생각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중략)… 감히 이런 뜻을 순찰사와 병마절도사에게 알렸더니 힘은 약한데 뜻이 성실하다며 가상히 여겨 특별히 삼십 석의 곡식을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자를 불러 자금을 보충한다면 기약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하였습니다. 삼십 석의 곡식도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들어오는 수입을 헤아려 보면 만분의 일도 채우기 어려워 희비를 저절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중략…²²⁾

(3) 저희들은 모두 못난 학자로 전란의 끝에 태어나 서적이 모두 없어짐을 걱정하고 문화 교육이 미치지 못한 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힘을 생각하지 않고 이일을 시작하여 정력을 다 쏟고 애를 태워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합하께서 한번 명을 내려주신 은혜를 입어 그동안 각지에서 양곡이 구할 정도가 도착하였고 질 좋은 板木을 이백장이나 허락해 주셨기에 은근히 권유해주신 뜻이 말씀 밖에 넘치게 되어 너무 위대하고 생각합니다. 비상한 일은 진실로 보통 사람은 능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중략…²³⁾

(1)은 병마절도사 이광악에게 보낸 편지이고, (2), (3)은 통제사 이시언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들 편지에는 이들이 서적을 간행하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광악의 편지에는 서적을 인쇄하는 일에 대해 칭찬과 함께 양곡을 보내주었다는 기록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2)의 이시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순찰사와 병마절도사가 30석의 곡식을 보내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순찰사와 병마절도사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이 서적 간행을 위해 양곡을 지원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3)의 편지를 보면 이시언의 명으로 각지에서 양곡을 보내 서적 간행에 필요한 양곡을 전체 9할 가까이 채울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질 좋은 판목 200개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이 판목들은 서적을 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통제사 이시언이 박근효의 서적 간행작업에 있어서 가장 큰 지원자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명나라 도독 진린에게 서적을 간행할 때 도움을 요청한 편지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백성들과 만물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으니 그 소생 시켜주신 은혜에 고무되고 끊어지려는 명을 이어주신 덕택은 만세토록 우리를 것이며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이에 문교의 교화는 성인의 경전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생각하고 한두 명의 유생과 이 인쇄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병화의 끝에 시기가 궁하고 힘은 약한데 일은 크고 재력이 부족하여 회암 주자선생이 문자를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없고 李君山房을 찾아가기 어려워 가슴속에 한만 쌓였으며 시간이 급합니다. …(중략)… 삼가 바라오니 금전으로 돕는 혜택을 베푸시어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일을 도와주신다면 어찌 글을 숭상하는 풍습을 크게 열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명성이 높고 장차 성화가 해역까지 이를 것이며 문명의 교화가 멀리까지 펼쳐져 예의가 나라에 흥기되어 제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의 정치에 이르듯이 글 읽는 소리가 넘쳐나 집집마다 정자와 주자가 있을 것이니 실로 우러러 의뢰하며 피차 경계가 없어지고 내려주신 큰 은혜를 높이 칭송할 것입니다.²⁴⁾

22)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上李統制使』, 125-126.;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75-77.

23)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其二』, 128.;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78-79.

이 편지는 박근효가 진린에게 보낸 편지로 임진왜란에 도움을 준 감사와 함께 주자의 일화를 예로 들며 자신들이 서적을 인쇄하는 데 금전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편지가 진린에게 전해지고 금전적 도움을 주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박근효가 의병활동을 하면서 명나라 도독 진린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 박근효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적을 간행하여 배포하기 위해 인연이 닿는 관료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심지어 명나라 도독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편지뿐만 아니라 박근효가 1600년(선조 33)에 간행한 『小學集說』의 서문과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의 발문에도 서적 간행을 도와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²⁵⁾ 『소학집설』의 서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중략)... 각자 財穀을 출연하여 권면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은 크고 힘은 약해 일을 끝맺을 수 없었다. 그런데 순찰사 한상공이 圖書를 모으려는 뜻을 칭찬하며 그 일을 주관하였고 병마절도사 이상공과 통제사 이상공도 글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각각 회사하여 널리 도움을 받게 되었으니 오늘의 일은 실로 삼공의 힘이였다. ...(중략)...²⁶⁾

박근효는 뜻을 함께한 동지들과 재곡을 출연하여 서적을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은 공력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방백과 병사, 통제사에게 서적을 간행하려는 뜻을 편지로 전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박근효의 편지를 받은 지방관들은 흔쾌히 도움을 주었고 서적을 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박근효는 전란 후 무너진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서적 간행에 힘썼으며 뜻을 함께한 동지들도 힘을 보태었다. 그리고 전라도 관찰사와 전라병사, 통제사 등에게도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광해군의 사부였던 박광전의 아들인 것과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근효는 친우와 지역 사림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지방관의 도움을 받아 보성의 죽천서당에서 서적 간행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4종의 서적을 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3.2 서적의 간행의도

박근효는 서적을 인쇄하기 위해 친우들의 도움과 여러 지방관들의 원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편지에서 언급했듯이 책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불타 없어진 전적을 복구하고 나라의 문교를 회복하여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신도 서당을 짓고 아동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특히 두 번째 통문을 보면 책을 인쇄한 뒤

24)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上天將陳都督璘』, 123-124. ;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73-74.

25) 『소학집설』의 서문과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 발문에 모두 전 전라도 관찰사 한효순과, 전라도병마절도사 이광악, 통제사 이시언의 도움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26)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書新刊小學書後』, 171-172. ;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103-104.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아 병란을 겪은 후 서적이 모두 소실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둠 속으로 가는 듯하니 무엇으로 指南을 삼고 깨우치지 못한 인심을 어찌 계도하며 긴 밤길을 가는 듯한 세 살을 어찌 밝히겠습니까? 나라가 장차 미친 진시황 때처럼 되어가고 있으며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으니 유식한 선비들이 어찌 개탄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관가에서는 일이 많아 힘이 미칠 겨를이 없어 이에 뜻을 같이한 몇 명의 친구들과 재산을 내놓고 재물을 모아 몇 권의 책을 인쇄하여 배우기를 원하는 학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선비 된 사람들은 장차 이 책으로 가르치고 강론하여 배우고 그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²⁷⁾

박근효는 선대에 내려온 문적과 나라에서 배포 혹은 內賜 받은 서적들이 대부분 불타 없어진 것을 한탄하였다. 이러한 마음은 다른 사람도 다르지 않음을 알기에 전란으로 불타버린 서적을 복구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하고 기강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이를 회복하는 방법은 교육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항복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후학이 책이 없어 배울 수 없음을 한탄한다고 적기도 하였다.²⁸⁾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동들을 위한 서적을 간행하기 시작하였고 竹川書堂을 짓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박근효가 간행했던 책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먼저 박근효가 간행했던 서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박근효의 간행 서적

	서명	저자	판본	책수	간행년	간행지	소장처
1	小學集說	程愈(明) 集說	목판본	1책(零本, 6권)	萬曆庚子(1600)春	竹川書堂(寶城)	경북대학교 도서관
2	三略直解	劉寅(明) 解	목판본	3권 1책	萬曆庚子(1600)孟夏	竹川書堂(寶城)	국립중앙도서관
3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余進宗海(明)編	목판본	2권 1책 (零本, 7-8권)	萬曆庚子(1600)仲冬	竹川書堂(寶城)	개인소장
4	千字文 ²⁹⁾	周興嗣 撰	목판본	1책	미상	竹川書堂(寶城)	미상(현전본 없음)

위의 표는 서적이 간행된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가장 먼저 간행된 서적은 『소학집설』이다. 이 책이 먼저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아버지 박광전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광전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소학』을 중심으로 하였고 가장 먼저 체득해야 할 책으로 보았다. 이러한

27)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其二」 155-156. ;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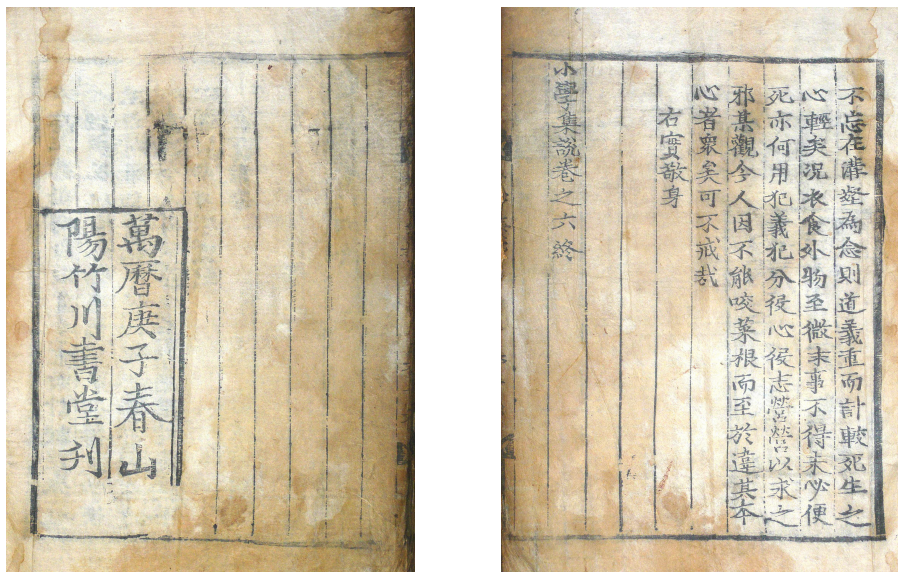
28) “…(중략)… 병화를 겪은 뒤로 서적이 모두 옥과 함께 불타서 사라지고 찢어지고 문드러져 후학들이 근거하여 배울 수 없으니 땅이 꺼지는 지극한 탄식을 하며 진나라의 분서갱유와 같이 깊이 한탄할 뿐입니다. 입으로 전해줄 스승이나 숨겨둔 서적을 찾기 어려운데 천리를 다스리고 도를 어찌 통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上李左議政德馨」, 1119-120. ;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69).

29) 『천자문』의 경우 기록상 가장 먼저 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현전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간행시기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전본 상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간행된 서적이 『소학집설』로 보고 서술하였다.

생각은 박근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며, 자신 아버지 박광전이 소장하고 있었던 『소학집설』을 저본으로 삼아 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³⁰⁾ 그리고 그가 작성한 『소학집설』의 서문에서도 간행 사유에 대해 볼 수 있다.

책은 하루도 없어서는 안된다. 三代 이전에도 三墳五典이 있었기에 사람이 배울 수 있어서 세도가 밝아졌다. 그러나 진의 분서갱유를 당하면서부터 『소학』이란 전서를 볼 수 없어서 이미 선현들이 한탄하였는데 하물며 왜구들에게 분탕을 당했으니 어떠하겠는가? …(중략)… 우선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 소학이란 책을 만들었으니 또한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오르고 먼 길도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을 취하였다.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도 책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 구할 수 있다면 도움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자년 중순에 후학 박근효가 쓰다.³¹⁾

위 서문을 보면 ‘책이 있으므로 배울 수 있고 세도가 밝아진다’ 라고 언급 하고 분서갱유에 『소학』이 사라진 것을 한탄하였는데 다시 전쟁 중에 소실되어 볼 수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소학집설』을 간행한 이유에 대해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여도 책을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자신이 책을 간행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적고 있다. 박근효는 이러한 생각과 이유로 『소학집설』을 간행하였다.



<그림 1> 『소학집설』의 간기 부분³²⁾

30) 박광전은 정유재란 때 가족들과 산속으로 피난하였으며, 혼란 중에서도 챙겼던 것 중 하나가 서적이었다. 앞서 언급했던 『주자서절요』는 이때 챙겨 보관했던 것을 보면 중요한 책들을 함께 가지고 피난했을 것으로 보인다.

31)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171-172. ;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118-120.

32) 경북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으로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2.3cm,

위의 『소학집설』을 간행하기 전 혹은 동일한 시기에 『천자문』을 간행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또한 아동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이 틀림없다.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의 발문을 보면 『천자문』과 간행 사실이 나타난다. 그가 서적을 간행한 경향을 보자면 모두 교육을 위한 서적들로 『천자문』과 『소학집설』을 간행하고 이후에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를 간행하여 서적의 간행 경향이 드러난다.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의 발문에는 두 책을 간행하고 난 이후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간행 사유도 함께 적고 있다.

정유란 때 수 만권의 책이 모두 불살라져 재가 되었고 완전치 못한 책만이 남아 있어 학문을 가르치는데 의지할 수 없다. 스승은 능히 口授 할 수 없고 제자들은 온전한 경전을 볼 수 없으니 이에 학문하는 자들은 근심하였다. 친우 한두 사람과 서사를 건립한 뒤에 목판에 책을 인쇄하여 널리 퍼지도록 논의하였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공역의 수고로움을 구제할 수 없었다. 1년 뒤 천자문과 소학 등의 책을 간행하였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길 敬身과 明倫이 마땅히 소학에서 우선됨을 대부분 알고 있다. 前言과 지나간 행적은 사략이 아니면 귀감으로 삼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중략)…³³⁾

위의 발문을 보면 책을 간행했던 1600년 이전부터 서적을 간행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고 그 시기가 적어도 약 1년 전이었음을 증명해준다. 『천자문』과 『소학집설』의 간행은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데 가장 기초이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의 간행은 역사서로서 법도에 맞게 문장을 쓰는 전개 방식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기록된 여러 역사 일화들을 통해 동몽들이 읽고 귀감으로 삼을 내용이 많았다. 더불어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는 동몽들만 읽는 책이 아니라 학문을 익히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책이었다.³⁴⁾ 따라서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의 간행은 동몽들 뿐만 아니라 학문을 익히는 자들에게 문장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정하여 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의 발문에는 ‘書肆’라는 표현을 통해 서적을 파는 서점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서적 간행을 통해 일부 필요한 곳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돈이나 현물을 받아 판매하여 기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 추정된다. 박근효가 간행한 서적은

가로 16.5cm이며 행자수는 10행 18자이다. 판심은 上下大黑口間混에 上下內向有紋魚尾이고 판심제는 ‘小學集說’이다. 본문과 난상에 필사된 漢文略體口訣이 달려 있다. 권말에는 校正, 都色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의 이름과 刊行諸員의 官名, 성명이 수록되어 있다(신정엽, “조선시대 소학의 간행과 판본,”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58).

33)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跋」.

“丁酉亂經綑萬■盡爲俱焚中灰爐編殘簡爛教學無憑師 不能口授弟子不見全經大爲學者憂茲與一二友效失夫子私設書肆謀錄梓廣布百蕩破餘資不能濟工役之煩歲一周下得刊出千字小學等書人謂敬身明倫宜先於小學多識前言往行非史略莫之爲右 …(중략)….”

34) 존재 위백규는 『史略說 三皇記』에서 “지금 읽는 자들이 『사략』을 동몽들이 배우는 책 정도로 소홀히 대하니, 매우 가당치 않다. …중략… 『사략』은 書法이 간략하면서도 내용이 극진하며 매우 精妙하고 지극하니, 언어로써 형용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문장을 배우는 자가 만일 『사략』 제1권을 익숙히 읽는다면 천하 고금의 문장을 하나의 원리로 꿰뚫을 수 있을 것이다. …중략… 書法이 간략하면서도 내용이 극진하며 매우 정묘하고 지극하니, 언어로써 형용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문장을 배우는 자가 만일 『사략』 제1권을 익숙히 읽는다면 천하 고금의 문장을 하나의 원리로 꿰뚫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存齋集』 권11, 「雜著」).

모두 실용서 위주이며, 앞에서 언급했지만 서적을 간행하면서 인력과 물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으로 주변의 지방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전하는 간행본 중 가장 주목이 되는 책은 병법서 가운데 하나인 『삼략직해』이다. 앞서 간행된 책들은 모두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들인 데 반해 『삼략』은 『武經七書』 중 하나로서 무예를 익히거나 무과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배우는 책이다. 동몽들과 학문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간행하다가 갑자기 이 책이 간행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적을 간행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 전라병사 이광악과 통제사 이시언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관료이지만 모두 무과 출신의 武臣이다.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문자를 익히고 학문을 배우는 책이 이미 간행된 만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병법의 기본서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삼략직해』는 『무경칠서』 중 하나로서 무과시험에서 講書하는 서적이기도 하다. 이광악과 이시언은 문교를 위한 서적 간행도 필요하지만 언젠가 또 있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삼략직해』 간행을 중용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중략)... 삼가 상공 합하께서 본래 성품이 시서를 좋아하고 『춘추좌씨전』에 일가를 이루신 분으로 항상 武事を 갖추어야 하나 文事도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일념으로 무기를 베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지금 흉적을 몰아내고 활과 화살을 거둬들이며 다시 천하를 안정시켜 태평한 운이 돌아와 문사를 닦아야 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중략)...³⁵⁾

위의 편지는 박근효가 이광악에게 보낸 편지로서 문교를 위한 서적 출판에 도움을 청하는 편지의 일부이다. 그는 무사의 일보다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점차 안정되어 가니 문사의 일을 닦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편지 내용에 근거한다면 박근효가 『삼략직해』를 간행하기보다 이광악이나 이시언의 요구로 『삼략직해』가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삼략직해』가 무과시험의 시강에 사용되었는데 당시 이 책이 없어 試講에서 빠지게 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간행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³⁶⁾

두 번째는 『삼략직해』가 담고 있는 내용 속에 『논어』와 『도덕경』을 방불케 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략직해』에는 노자의 영향이 강하지만 유가와 법가의 설도 섞여 있다. 그 가운데 ‘擧賢治軍’사상은 유가의 사상과 합치된다. 특히 거현치군사상은 현자를 발탁해 군사를 다스려야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고, 적군도 능히 제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역대 병서 가운데 현자의 기용을 역설한 병서는 『삼략직해』 뿐이다. 내용은 단순한 ‘치군’의 차원을 넘어, ‘治國’과

35)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上李兵使光岳』, 131. ;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81-82.

36) 1601년(선조 34)에 병조에서 무과를 치를 때 시강할 서책을 구할 길이 없어서 『무경칠서』 가운데 남아 있는 『손자』·『오자』·『태공육도』 중 1서와 사서오경 중 1서 만으로 시강하기를 건의하였다(『선조실록』 34년(1601) 2월 28일).

‘治天下’ 사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로 박근효가 『삼략직해』를 간행한 것은 서적을 간행하는 데 도움을 준 전라병사 이광악이나 통제사 이시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의지로 간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삼략직해』가 병법서이지만 유가사상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배워둔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효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의병활동을 함께 해왔다. 무예는 바로 배우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전술이 적힌 병법은 급박한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사상과도 합치되면서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병법서인 『삼략직해』를 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³⁸⁾

박근효가 책을 판각한 시기는 모두 1600년(선조 33)으로 동일하다. 간행된 3종의 책은 봄, 여름, 겨울에 각각 완성되었다. 1년에 3종의 책을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가 몇 종의 서적을 간행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현재 파악된 것은 『천자문』, 『소학집설』,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 『삼략직해』 4종이다. 1600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는 현전본이 없어 알기 어렵다. 다만 『삼략』의 책 상태를 보았을 때 많은 인쇄가 이뤄졌는지 책판이 많이 닳아 있었다. 이는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간행서적의 배포

앞에서 살펴본 4종의 서적은 주로 교육서 위주로 간행되어 학문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간행 서적은 보성지역과 인근 지역에 배포하기 위해 간행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까지 배포하고자 하였다. 그래야만 서적을 간행하려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효는 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떻게든 배포하려고 하였다. 통제사 이시언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간행된 서적을 어떻게 배포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중략)... 또 한 가지 일은 많은 곳에 편지를 보내 책을 살 수 없는 먼 곳까지 퍼지게 하려고 합니다. 도로를 통행하는데 육로에 장애가 있다고 우려될 만한 곳은 이미 순찰사가 명을 내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關을 내려주었습니다. 수로의 각 성과 진영은 오로지 합하의 명령을 받고 있는데 어찌 감히 다른 곳에도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적으로 어선 한 척을 구해 사고파는 일을 뜻대로 하려면 합하께서 내린 關이 없으면 편리하게 전할 길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사공과 격군이 길을 인도할 때 관문에서 침해하는 일이 없고 완성된 이 책이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아 성과를 얻을 수 있고 홍택이 더욱 저절로 널리 미칠 것이니 은혜의 경중이 어떠합니다. 합하의 업위를 범하여 더욱더 황공합니다.³⁹⁾

37) 신동준, 『무경십서』 4 (서울: 역사의 아침, 2012), 441.

38) 『손자병법』이 전략을 주제로 한 데 반해 『삼략』은 政略을 주제로 한 병서라는 평이 있다. 성리학을 맹종하여 병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조선조에 1805년(순조 5)에 유인의 『삼략직해』를 언해본으로 간행한 것은 박근효가 『삼략직해』를 간행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9)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上李統制使』, 126-127. ; 문집편찬위원회, 『晩圃

위의 편지 내용은 통제사 이시언에게 해로를 이용하여 서적을 옮길 때 관문에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다. 이 편지를 통해 서적이 육로와 수로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육로로 통행하면서 각종의 침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순찰사가 관(關)을 내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서적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옮기는 도중에 침탈당할 우려가 다분하였다. 순찰사에게 요청하여 내륙에서 서적을 옮길 때 향리나 군관 등이 침탈하지 않도록 통행할 수 있는 공문서를 내려주었음을 볼 수 있다. 해로로 이동할 경우 마찬가지로 침탈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사에게 미리 방지하고자 편지를 보낸 것이다. 통제사 이시언도 순찰사와 마찬가지로 서적을 옮길 때 침해를 입지 않도록 인장을 찍은 관을 내려줬을 것이다. 이처럼 박근효는 서적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육로는 물론 여선까지 구입해서 공급하려고 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배포한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보성지역에서만 서적을 간행한 것이 아니었다.

(1) …(중략)… 나주에다 인쇄소를 설치하고 호남 오십삼개군에 사는 소자 후생들에게 유학과 학문을 숭상하는 덕화를 입게 하셨습니다. …중략… 나주에 인쇄소를 설립한 후로 각 지역 각공은 모두 이곳에 소속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일은 도리어 개인적인 일을 생각하고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중략)…⁴⁰⁾

(2) …(중략)… 나주는 일도 중에 큰 고을이므로 문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며 재력도 많아 순찰사가 중히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믿는 곳은 유독 함하 한분만 우리르고 있기 때문에 문득 재력과 힘이 넉넉하지 못할까 두려워 후한 뜻에 답을 못하였습니다. …(중략)…⁴¹⁾

(3) …(중략)… 저희들의 염려가 더욱 커진 것은 나주에 인쇄소를 설치한 후 순찰사께서 중하게 여기는 곳은 오로지 나주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의 일은 형편이 매우 약하게 되었습니다. …(중략)…⁴²⁾

(1)은 박근효가 좌의정 이덕형에게 보낸 편지이며, (2)는 이시언 통제사에게 보낸 편지이고, (3)은 전라병사 이광악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들은 앞서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물자를 요청했던 편지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모두 박근효가 서적을 간행하려는 시기에 나주에도 인쇄소가 설치되어 문교를 위한 서적이 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주는 순찰사가 중요하게 여겨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편지를 통해 나타나 있다. 나주에서의 서적복구는 나주의 유림이나 몇몇 가문이 중심을 이뤄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주도하였기 때문에 책판을 판각하는 모든

集』(경기: 경인문화사, 1993), 76-77.

40)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보성: 보성문화원, 2014), 『上李左議政德馨』, 121-122.;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경기: 경인문화사, 1993), 71.

41)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보성: 보성문화원, 2014), 『上李統制使』, 129.;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경기: 경인문화사, 1993), 75.

42)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보성: 보성문화원, 2014), 『上李兵使光岳』, 131.; 문집편찬위원회, 『晩圃集』(경기: 경인문화사, 1993), 81-82.

각공들이 나주에 집중되고 여러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도 볼 수 있다. 전라도에서는 전라우도인 나주와 전라우도인 보성에서 임진·정유란에 산실되었거나 불타 버린 서적을 복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성의 경우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적을 간행하여 육로와 해로를 통해 직접 가져다주었음을 앞서 통제사 이시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보성의 경우 서적을 구매하거나 배포한 것을 가지러 오기보다 직접 가져다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나주와는 달리 보성지역에서는 박근효의 주도하에 민간에서 서적을 간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적이 배포된 범위는 아무래도 전라좌도를 중심으로 배포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주와 가까운 지역인 경우 동일한 서적이라면 보성보다는 나주에서 서적을 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전본 가운데 전라좌도에 해당하는 장수군에서 서적을 소장한 사실이 서적에 장서기로 남아 있어 범위 추정에 도움이 된다.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의 권말 간행제원이 인쇄된 좌변 변란 옆부분에 장서기가 있다. 장서기의 기록을 보면 ‘全羅道長水冊主金氏[著名]’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전라도 장수군에 살고 있는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이 박근효에게 서적을 전해 받고 기록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서적을 인계받은 지역이 전라도 장수군인 것으로 봤을 때 박근효가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어선을 이용하여 섬진강 지류를 통해 장수군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효가 전라도 순찰사와 통제사에게 서적을 가지고 이동할 때 침탈하지 못하도록 관문서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전라좌도와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서적을 일부 배포하고 나머지는 간행 비용을 받고 판매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전란이 끝난 후 산실되거나 불타 없어져 버린 서적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은 중앙을 비롯하여 지방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전라도는 보성과 나주에서 서적의 복구에 관련 기록이 있어 알 수 있으며, 경상도의 경우는 『孤臺日錄』 속 함양에서 ‘冊局’의 설치와 그와 연관된 ‘運米’ 그리고 향교에서 ‘冊板’ 및 쌀과 베를 모으기 위한 내용이 조금씩 나타나 있다.⁴⁴⁾ 박근효와 같이 서적과 관련된 기록이 일괄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고대일록』처럼 일부분 유추할 수 있도록 일기류나 문집 등에 기록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전라도의 박근효 경상도 정경운의 기록을 통해 전란으로 사라진 서적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지방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
권말 장서기⁴³⁾

43) 개인소장본.

44) 鄭慶雲 지음, 남명학연구원 옮김, 『孤臺日錄』 下 (경기: 태학사, 2009), 100·105·115·120.

4. 맺음말

박근효는 전쟁으로 불타 없어진 전적들을 복구하고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학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거주지 근처에 죽천서당을 짓고 1599년부터 인근 지역의 동지들과 서적을 간행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부족한 물자와 양곡을 도움받기 위해 여러 지방관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부족한 물품들을 보급받았다. 그가 편지를 보낸 인물은 좌의정 이덕형, 전라도 순찰사 한효순, 병마절도사 이광악, 통제사 이시언 그리고 명나라 도독 진린이다. 편지 내용을 통해 한효순과 이광악 그리고 이시언이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시언의 경우 양곡과 관목 200관을 지원하여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그가 간행한 서적은 『천자문』, 『소학집설』,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 『삼략직해』 4종이 파악되며 『천자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전본이 존재한다. 그는 이렇게 간행한 서적을 육로와 해로를 통해 전달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통제사 이시언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통문에서처럼 책을 간행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배포하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일부 간행 비용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보았다. 그가 이렇게 서적을 간행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박광전이 광해군의 사부였고 지역에 문인들이 많았다는 점과 그가 임진왜란 때 전라좌의병장의 참모장으로 활약한 점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산실되고 불타 없어져 버린 서적을 복구하려는 노력은 박근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특히 나주의 경우 관에서 인쇄소를 마련하여 책을 간행하려는 모습이 나타났고 『고대일록』에서 책국을 설치하여 향교에서 책을 간행한 기록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박근효의 경우는 다른 곳과는 달리 민간에서 주도하여 서적을 간행하는 동시에 관에서 일정한 도움을 받은 것이다.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의 발문에 ‘서사’의 표현과 편지들의 내용에서 서적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른 시기의 전라도 방각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재원의 일부를 관에서 지원받아 간행되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방각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간행 서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의 서적 간행이 주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추가적인 자료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가 보성에서 진행한 서적 간행은 임진왜란 이후 민간에서 서적을 간행하고 판매한 사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竹川先生文集』

『存齋集』

『亂中雜錄』

『萬曆四十年壬子三月十三日司馬榜目』(고려대학교 도서관 청구번호: 만송 B8 A1 1612A)

문집편찬위원회. 『晚圃集』. 경기: 경인문화사, 1993.

박근효 저, 박경래 역. 『국역 만포집』. 보성: 보성문화원, 2014.

신동준. 『무경십서』 4. 서울: 역사의 아침, 2012.

정경운 지음, 남명학연구원 옮김. 『孤臺日錄』 下. 경기: 태학사, 2009.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 경기: 아세아문화사, 2011.

조원래. 『장윤의 의병활동과 정충사』. 순천: 승병지방사연구원, 2013.

박철상. “冊契로 본 17세기 南人들의 상업출판.” 『대동한문학』 52권(2017. 9). 5-29.

신정엽. “조선시대 소학의 간행과 판본.”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옥영정. “17세기 출판문화의 변화와 서적간행의 양상.” 『다산과 현대』 3(2010. 10). 51-77.

이상현. “朝鮮時代 湖南 義兵家門의 서적 간행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20.

조원래. “朴光前의 舉義와 그 一家의 의병운동.” 『퇴계학과 유교문화』 32호(2003). 135-16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 [접속일 2020.11.10.]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접속일 2020.11.10.]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11.10.]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Jo, wonrae. 2003. “Loyal troop’s activities of Park Kwang Jeon and his family.”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32: 135-160.

Lee, sanghyun. 2020. *A study don the books published by the families of righteous army members in the honnam region during the joseon period*. adoctoral dissert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Ok, youngjung. 2010. “Changes of publishing culture and aspects of book publishing in the 17th century.” *The journal of Tasan and the contemporary times*, 3: 51-77.

Park, chulsang. 2017. “Commercial publication of Namin examined through Chaeggye on the

17th century.” *Daedonghanmun*, 52: 5-29.

Shin, jungyub. 2009. *Publication and Printed Books of Sohak(小學) in JoSeon Dynasty(朝鮮)*.
a master's thesis at Kyungpook Univ.